

# A Study on Christian Liberal Arts to Cultivate Religious Literacy

Miyoung Cho  
(Yonsei University)

##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the role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in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search content and method:** It examines how liberal arts education has changed with the times, and examines the modern significance of the role of liberal arts education that is requested today.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of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liberal arts education, which was neglected by focusing on major-centered professional education, has become important. The need for creative and integrated thinking skills to create and apply new knowledge on their own has been highlighted. Liberal arts education and Christianity have a common denominator, and they can produce richer fruits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Religious literacy is the ability to identify and analyze the fundamental intersection between religion and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life through various lenses.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culture that must be equipped as a democratic citizen living in the 21st century. Understanding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humanities and culture. Through the cultivation of religious literacy, it will be possible to develop thinking skills and insights to 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ity and various fields of life as a whol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rough this study, the need for religious literacy was expressed, and the direction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requested in this era was sought.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that fosters religious literacy is proposed as a way to handle the role of a holistic leader of public society by aiming for convergent thinking and promoting public responsibility.

## Key Words

Religious Literacy,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Convergent Thinking,  
Public Responsibility, Project-Based Learning(PBL)

##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교육 연구

조미영\*\*  
(연세대학교)

###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1세기의 대학 교양교육에 있어, 기독교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교양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면서 교양교육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고찰하고, 오늘날 요청되는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한 현대적 의의를 되짚어보았다. 21세기의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전공 중심의 전문교육에 치중하여 소홀히 여겨졌던 교양교육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능력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교양교육과 기독교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다양한 렌즈를 통해 종교와 사회, 정치, 문화적 생활 사이의 근본적 교차점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종교 리터러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랜 역사 가운데 다양한 영향을 끼쳐 왔으며 지금도 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종교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인문 교양으로, 종교 리터러시의 함양을 통해 기독교와 삶의 다양한 분야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고능력과 통찰력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를 통해 종교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이 시대에 요청되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며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킴으로써 공적 사회의 전인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을 제안한다.

### 〈 주제어 〉

종교 리터러시, 기독교 교양교육, 융복합적 사고, 공적 책임감, 프로젝트기반학습(PBL)

##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다원주의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있어서도 지식 그 자체를 전수하기보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해서 활용하는 지적 능력에 대한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그에 따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학습자의 사고력 향상을 추구해 오면서도, 교육과정의 실용성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허친스(R. M. Hutchins)의 사례가 전파되고, 전공이 없이 교양만 수업하고 졸업하는 세인트존스 대학이 서적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재현·이인경, 2019).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여 국내외 여러 대학들은 학부대학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이와 더불어 기초교육원이나 교양교육원과 같은 교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며 교양교육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박현정, 2011).

화이트헤드(Whitehead, 2004, 37)에 따르면, 교양이란 사고력의 활동이자 아름다움과 인도적 감정(humane feeling)에 민감한 감수성으로, 단편적인 지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양과 특수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간을 육성함에 있어, 전문지식은 교양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필요한 무대를 제공하고, 교양은 그들을 예술의 높이와 철학의 깊이로까지 이끌어준다는 것이다. 교양교육에 있어, 특정한 지식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의 지식이든지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탐구하며 종합할 수 있는 사고력과 판단력의 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양교육은 교육내용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며 평생학습 태도를 강화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은 내용적으로 볼 때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한국의 대학교육은 현실적으로 전공교육의 주과제를 전문 직업교육에 두고 여기에만 열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보편 지성교육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은 등한시되어왔다. 어떤 교육을 통해 사실세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며 가치를 품는 목적적 관계에 대한 지혜가 습득되고 숙성되는지를 생각해본다면, 보편 지성교육은 소홀히 취급되고 전문 직업교육이 강조되어 온 오늘날 한국의 대학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 답은 분명해 보인다(손동현, 2019, 10). 21세기의 대학 교양교육은 민주 시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디지털화된 환경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산출해야 하므로 세부적으로 분절된 학과적 접근보다는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신행자, 2013). 또한 교양교육은 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양교육 과정의 강화는 현대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 및 인성 함양

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최성훈, 2020).

21세기 정보사회의 새로운 지적 지형은 우리에게 목적적 관계에 대한 지혜를 어느 시대보다 더 요구하고 있고, 이 요구는 곧 폭넓고 깊이 있는 교양에 대한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치와 목적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삶의 목적적 의미연관, 즉 인간 삶의 조건이나 인간다움의 본질과 같은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고, 인간의 공동체적 삶의 본질과 그 한계, 그리고 가능한 방식 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적 삶의 기초 토대인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손동현, 2019, 12). 이러한 교양과 교양교육의 부상은 기독교 교양에 있어서도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양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특히 기독교 교양교육에 있어 종교 리더러시를 함양하여 인문학적 통찰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독교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교양교육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

### 1.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教養)’은 지식, 도덕, 정서 등을 바탕으로 길러진 고상하고 원만한 품성을 뜻한다. 교양교육은 일반적으로 지(知), 정(精), 의(意)를 고루 겸비하여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반교육의 목적과 인간 본연의 자유로운 사고를 도모하는 자유교육의 목적이 통합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박주호·유기웅, 2014). 기초교육, 인문교양교육, 공통기초교육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교양교육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전문교육과는 다르게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확장하고 개발하는 폭넓은 기초 교양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최성훈, 2020).

라틴어 Artes liberales는 교양과정 또는 교양과목을 가리키는 영어 Liberal arts의 어원으로, 키케로(Cicero)에 의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liberal’은 단순히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닌 로마의 자유 시민에 준한다는 의미로, 자유인을 위한 과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교양교육의 기원으로 인식되는 자유교육은 인간의 이성을 자유롭게 발달시켜 무지, 편견, 미신, 편협함 등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사상이다(최미리, 2001, 10). 자유교육은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참정권과 여가시간을 가진 소수의 지배계층인 자유인에게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자유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문법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전들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지혜를 습득하도록 하고, 수사학적 훈련을 통해 습득된 지혜를 설득

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적 리더로 키워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Hardy, 2004: 박현정, 201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자유시민은 사회적, 정치적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되었다(A. F. Holmes, 1989, 35).

테오도르 헤스버그(T. M. Hesburgh)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의 자유교육이 지향하는 자유는, 첫째, 자신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자유이고, 둘째, 종교적 신앙의 자유이며,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인류 공동의 특징을 실용적인 유용성, 기계적인 학습 그리고 세분화 전문화를 지양하는 대신 학문 그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와 폭넓은 학습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볼 수 있다(최미리, 2001, 12-13). 고대 교부들은 이와 같은 자유교육 이념을 기독교적으로 적극 수용했고, 그러한 전통은 중세를 거쳐 근대까지 지속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양한 학예(liberal arts)가 기독교 진리와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목회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조용훈, 2004).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적 영향을 받았던 중세의 대학들은 7개의 자유학과목, 즉 3학(논리학, 문법, 수사학)과 4과(기하학, 천문, 산수, 음악)를 핵심 교과목으로 가르쳤다.

그리스 자유교육의 정신을 근간으로 유럽과 미국의 대학들은 종교개혁 이후에도 3학과 4과에 신학 과목과 채플이 추가된 고전교육이라는 명칭의 인문교육과정을 갖추었다. 예를 들어 1636년에 세워진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 자유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전적인 교육을 통하여 성직자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엘리트 교육을 표방하였다(최미리, 2001, 23). 미국의 초기 기독교대학들은 계몽주의 철학과 민주적 시민사회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근대 모던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문적 직업교육을 추구하면서 교육과정을 수정해 나가게 된다. 달리 서술하여, 대학이 근대사회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사회의 책임 있는 전문적인 직업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 세분화된 전공교육과 즉각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면서, 이전까지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던 자유학문의 정신은 점차 퇴색하게 된다(박현정, 2011, 60).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르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기술적, 전문적, 직업 중심의 교육과정이 강조되는 실용주의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교양교육의 입지가 약화되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의 문화운동과 20세기 초 대학의 지나친 전문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교양교육은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신행자, 2013).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적 종합대학이 확산됨에 따라 엘리트적인 자유교육이 보편적인 대중교육의 형태로 이행하게 되었고, 교양교육은 일반교육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대학 유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들이 등장하고 교양교육 역시 시대적 변화에 상응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2. 교양교육의 현황과 현대적 의의

대학 교양교육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라는 관점에서 전개되어 온 과정을 살펴보면, 1949년 교육법 수립 및 1952년 시행령 완비를 통해 대학 교양교육의 초기적인 틀이 형성된 시기, 1972년에 ‘고등교육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안’이 공포됨으로 이른바 실험대학 체제에서 교양교육과정이 변화했던 시기,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의 공포로 인해 학부제 체제에서 교양교육과정이 변화했던 시기 등으로 주요 단락들을 구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49-1972년의 시기는 미국식 대학교육의 제도에 의하여 교양교육의 외형이 주어졌지만, 학문 전통이나 인적 구성에 있어 일본식 대학교육의 잔재가 만연하였고, 교과 내용도 개론교과목과 도구교과목으로 구성되어 본원적 의미에서 교양교육의 비중이 현저히 낮았던 초창기로 볼 수 있다. 1972-1995년의 시기는 산업화에 요구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존의 대학 체제를 좀 더 유연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대학 체제가 전개된 시기로, 학과별 모집에서 계열별 모집으로 모집방식을 전환하고 대학교육에 있어 집중 이수 및 배분 이수의 대상과 시기를 구분하여 실천한 의의를 지닌다. 1980년대 들어 전공교육의 부실을 이유로 들면서 계열별 모집에서 학과별 모집으로 다시 환원하였지만, 포괄적 배분이수제에 의한 교양교육의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을 수 있었다. 1995-현재의 시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세계질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제를 필두로 하여 대학교육과정이 대폭 개편되었는데, 특히 정보화·세계화라는 슬로건에 따라 외국어와 컴퓨터 관련 교과목이 교양교육에 도입되었고, 교육중심 대학과 연구중심 대학의 이원화, 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시도하는 등 학부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었다(노관범, 2010. 7-8).

한국의 대학들은 그동안 현실적으로 전공교육, 즉 특화된 전문적 직업교육에만 열중해 왔고, 일반적 보편 지성교육인 교양교육은 매우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산업화를 집중적으로 추구할 뿐 그 외의 문제들은 유보하거나 외면해 왔던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인들이 추구했던 수단적 가치의 증대라고 하는 이념은 대학에서 전공 학문을 중시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양교육은 소홀히 여기는 풍조를 만연시켜 왔다(손동현, 2019, 44).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응용학문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전공학문에 쏟도록 요구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이 한국에서 널리 시행되었던 데는 물론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강도 높은 산업화를 통하여 국가사회를 급속히 근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전문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단기간 내에 대폭적으로 학습하고 수용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든 한국 사회는 이전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도 급속하게 정보사회로 이행하였고, 산업화에서 요구되었던 특정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만으론 대학 고등교육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식사회의 지형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장기간에 걸쳐 지식이 어렵게 창출, 전수, 활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무척 용이하게 산출, 복제, 유통 및 소비된다. 산출되는 정보의 양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고, 이렇게 생산되는 정보의 유통에 있어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거의 없다. 파편화된 정보들이 범람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일은 어려워진다. 정보의 효용 기간, 즉 유효-수명이 급속히 단축된다. 감각적 지각작용이 논리적 사유활동보다 우세해져 문해적 의사소통을 문맹적 의사소통이 대체하는 현상이 확산된다(손동현, 2019, 40-41). 그리고 융복합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적 지형이 이렇게 변화하고 그에 따라 지적 탐구의 양상과 지향에도 이같은 변화가 찾아왔다면, 이 새로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지적 능력 내지 정신적 자질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살펴보면, 첫째,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며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능력이다. 둘째,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능력이 요구된다. 창의적 사고능력이라 함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지식의 혼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전체 속에서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이다. 정보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대체로 지식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연관 전체에 대해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통찰력은 하나의 틀 안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하는 능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 사고를 넘어서 감성적인 것을 수용하는 능력이다. 이성과 감성을 배타적으로 양자택일하는 것이 아닌, 이 양자를 같이 수용하여 넘나드는 능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역사·의식과 공동체 의식으로, 지적 영역의 외부에 있는 지적 지형을 변화시키는 문명사적 변화, 즉 공동체의 유목화와 문화 세계를 단층화시키는 세계화의 위협에 대해 지적 대응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손동현, 2019, 42-43).

대학의 고등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에 대한 원론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현실에 절실히 다가오는 문명사적인 변화 요인들을 생각해볼 때,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교육의 수요는 위와 같은 능력의 함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방적으로 여러 학문 분야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서 범용적으로 요구되는 기초능력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의 함양을 위하여 학제적·다학문적 융복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정향의 교육은 교양교육이 본래 추구하는 바와 궤를 함께하는 것이며, 바로 이 점이 대학교육 전반에서 교양교육이 새롭게 강조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교양교육은 대학 졸업 후에도 평생학습을 계속 수행해나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동기를

계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여러 전문분야의 근본 문제와 첨단 지식을 연계시킬 수 있는 지적인 연결 지평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 될 필요성이 있다(손동현, 2019, 17). 그러므로 교양교육은 학문 각 분야의 전공교육과 배타적으로 충돌하는 교육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공 교육의 성과를 상승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들은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역량의 육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역량들을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OECD의 DeSeCo(Defining and Selecting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지식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 사회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적인 핵심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자율적인 행동(자기관리), 다양한 집단 내에서의 역할 수행(대인관계 관리), 효율적인 도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핵심역량 교양교육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21세기 교육의 역량이라 함은 개인의 내면화된 속성으로서 단지 특정 분야의 능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태도, 지식, 흥미, 동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상상력, 혁신과 도전 등을 지칭하는 소프트 파워 또한 교양교육을 통해 육성되는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백승수, 2017). 교양교육은 인간과 사회, 자연, 문화에 대한 근원적 질문과 통합적 통찰을 요구하는 거시적인 질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학에서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 먼저 지식교육에서 능력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기성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며 또한 적응할 수 있는 기초적 사고능력의 함양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손동현, 2019, 214). 즉,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 새로운 정보를 산출해 낼 수 있는 창의적 사고능력,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신의 사유 내용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학문 분야 내에서 전문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과 나란히 전체 속에서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넓은 조망 능력과 깊은 통찰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이에 기초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교육을 통해 전문 영역 간의 지적 연결 지평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Ⅲ. 기독교 교양교육의 역할과 종교 리터러시

#### 1. 기독교 교양교육의 역할

교양과 기독교는 근원적으로 많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 소통을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조재천에 의하면, 교양교육과 기독교는 크게 다섯 가지의 지점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첫째, 존재의 근원 또는 궁극(신)에 관한 전제, 둘째, 인간 존재의 본질에 관한 전제, 셋째, 인간론으로부터 파생된 도덕적 이상과 가치, 넷째, 세계 변혁을 위해 사유하는 능력으로, 특히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유의 문제, 다섯째, 인성 함양의 문제가 그것이다(조재천, 2020, 32). 이 다섯 가지의 공유 지점은 기독교적으로 교양교육을 구현하고 기획하는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국 종교적 교육 또는 기독교적 교육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교양교육의 이상과 매우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대학 환경 속에서 교양교육은 기독교의 가치와 정당성을 잘 드러내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 교양교육은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교육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보편적인 교육으로 강조되고 받아들여져 왔다. 인간이 누리던 자유와 여가, 무지로부터의 해방,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의 방향 설정과 같은 의미에서 자유교육 혹은 자유 교양교육은 이성적 인간의 양성에서는 역사의 매시기마다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전의 시기에는 교양이라면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배워야 하는 내용이었으나, 전문화·직업화가 가속화 되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자유 교양교육의 의미는 축소되었다. 대학교육은 그동안 교육의 본래 목적인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인성교육과는 달리 취업 중심적인 직업교육이나 지식전달 중심의 교육에 주로 편중되어왔다. 또한 대학교육이 지나치게 직업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학생들의 지식이 단편화되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통합적 조망을 상실했다는 점이다(조용훈, 2004). 그 결과 학생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었고,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탈락하는 등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감과 박탈감으로 인해 정서적·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박민수, 2009).

자유 교양교육의 목적은 무엇보다 인간으로 하여금 지혜를 길러주는 것이다(손승남, 2011, 253-254). 즉, 주체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포괄적인 능력과 동시에 도덕적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다. 시카고 대학 총장을 역임 하였던 허친스(1976, 90)에 따르면, 자유 교양교육의 목적은 지혜이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 의무를 지니며, 가능한 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이성적 인간의 육성과 관련하여 자유 교양교육의 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교양교육의 또 다른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인성에 대한 교육은 외형적 소유의 교육이라기보다 존재의 교육이며, 지식의 교육이라기보다 지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이 가진바 그 무엇을 뜻한다고 하면, 지혜는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F. Vanhan & R. Walsh, 1998, 24-34; 박민수, 2009에서 재인용). 무언

가를 소유하려는 소유 지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인성을 학생들에게 스스로 실천하게끔 하는 존재 지향적인 교육을 지향하기에 그 내용도 단순히 지식의 전수나 정보 전달만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추구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독교 교양에서의 인성교육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지각, 실존적 자각, 자아실현 등으로 표현되는 자신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구조 속에 자기 초월의 단계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민수, 2009). 따라서 기독교 교양에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은 자아개념을 타자 및 자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초월자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을 주제로 다루는 것은 다문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있는 현시대 속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어떠한 삶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수용하여 이를 행동으로 옮기거나 실천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숙고하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홉즈(A. F. Holmes, 1999)는 교양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직업 준비이며, 대학에서의 교육은 단지 직업을 위한 기술교육이 아닌 평생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력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박민수, 2009에서 재인용). 특히 기독교 교양교육은 경력과 직업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며, 더불어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진리를 깨닫도록 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기독교 교양교육은 직업교육에도 공헌한다고 하였다. 홉즈(2001, 109)에 의하면, 기독교 교양교육이 직업교육에 공헌하는 점은 첫째, 광범위한 학습이 지식을 풍부하게 하며 경험을 다양하게 한다. 둘째, 말하고 분석하며 의사를 전달하는 기술은 어떤 종류의 직업에도 유용하여 평생 직업에 도움이 된다. 셋째, 철학이나 역사는 개별적 경험과 관련이 되며, 세계관의 전제들을 드러내 준다. 넷째, 사회적 이슈들과 도덕적 가치들에 대한 참여는 양심을 계발하고 도덕적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준다. 다섯째, 미적 경험들은 상상력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여섯째, 그로 인해 지적·영적·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위원회에서 간행한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육목적은 전문가면서 동시에 시민과 자유인으로서의 일반적 자질을 소유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양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최미리, 2001, 83). 사회와 우주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전인을 육성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표이다. 전문교육이 특정 직업에서 유능한 전문인을 육성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양교육은 책임 있는 인간 그리고 시민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삼는다. 한 개인이 특정 기술과 직업에 전문가가 되도록 교육함

과 동시에 시민과 자유인으로서의 일반적 자질을 소유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Harvard Committee, 1945, 52-54). 또한 어느 분야에서든지 책임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폭넓은 비판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인 기독교적 교양교육은 읽고 쓰는 능력과 더불어 과거에 대한 비판의식,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참여, 건전한 가치 판단과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교육과 달리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학문을 조명하는 교양교육은 기독교 세계관을 투영하기에 적합하며, 기독교적 전인을 양성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하다(이상민, 2018).

이처럼 교양교육은 인간과 세상과 사물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세상과 마주하여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체계이며, 특히 기독교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은 물질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과 세상과 사물을 통전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교육적 사명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기숙, 2008).

## 2. 종교 리터러시의 필요성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사실적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 아니라, 그 지식을 비판적으로 검증해서 자신의 인격 일부가 되도록 하며 인식 결과를 서로 총체적 관계망 속에 엮는 일이다(A. N. Whitehead, 2004, 14). 지식이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해석에 따라 변화하고,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치의 맥락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하게 특정 정보 및 방법을 습득 및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F. S. Weaver, 1991, 54). 이를 위해서는 역사와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며, 그중에 오랜 역사와 시대에 크나큰 영향을 끼쳐 온 종교에 대한 독해력, 즉 종교 리터러시가 하나의 렌즈 역할을 할 수 있다.

종교는 인류와 함께 탄생했고, 인류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정교분리(政教分離)가 실제로 실행된 시대는 없으며, 종교를 제거하려는 노력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없다. 일부 진화생물학자들조차도 종교가 인류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을 주었고, 종교성이 높은 집단들이 살아남아 현재의 인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사실은 절대다수의 세계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로 존재하며, 나아가 현실을 초월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인류가 있는 한 종교가 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권수영 외, 2019, 5-6). 따라서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종교적 인간이란 종교가 인간의 천성에 속한다는 뜻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텔리기오수스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며 오관(五官)으로 감지되는 일상적 세계와는 다른 세상을 상정하여 유한성을 넘어서려 고민하기 때문이다(권수영 외, 2019, 4). 종교적 인간이 모여 구성된 사회가 종교와 무관할 수 없다.

다이앤 무어(D. L. Moore, 2014)에 의하면, 종교 문맹이란 세계 종교 전통의 기본 체계, 다양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융합하고 전개된 종교 전통 내에 다채로운 종교 표현과 믿음의 다양성, 동시대와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 정치, 문화적 삶에서 종교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종교에 대한 만연한 문맹은 편견과 편협함을 조장하고 대인관계에서 민족 국가 간의 협상에 이르기까지 인간 상호 작용의 전체 규모에 걸친 협력 노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폭력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문맹인 상태에서 사람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고단해질 수 있다. 반대로 종교 리터러시(religion literacy)를 갖추면 우리는 우리 삶의 가능성을 훨씬 더 풍요롭게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종교 문맹으로부터 오는 갈등과 반목, 나아가 엄청난 과학기술로 지구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전쟁과 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수도 있다(권수영 외, 2019, 8).

무어(2014)는 종교 리터러시를 다양한 렌즈를 통해 종교와 사회/정치/문화적 생활 사이의 근본적인 교차점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한다는 것은 세계의 여러 종교적 전통에 대한 역사, 경전, 신념, 제의와 그것들이 발생하고 전개된 역사, 문화적 맥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치, 사회, 문화적 표현의 종교적인 차원을 분별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 즉, 종교는 문화에 내재되어 있고 문화와 분리할 수 없는 사상, 관습, 가치, 이야기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를 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듯이, 종교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인종, 민족, 성별, 성, 사회경제적 계층이 항상 문화적 해석과 이해의 요소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특정 정치적 또는 경제적 행동과 동기가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을 형성하는 종교적 및 기타 이데올로기적 영향을 이해하지 않고는 인간 경험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차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D. L. Moore, 2014). 이처럼 종교는 인간 현상 전반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리터러시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양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 리터러시가 필수 교양인만큼,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21세기 교양인이 필히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기독교는 세계의 최대 종교이며, 역사, 문화, 사회, 예술, 정치, 사상, 학문 등에서 발휘하는 영향력도 가장 크다. 서양은 2,000여 년

간 기독교라는 단일 종교 사회였고, 조선 시대는 500년간 유교, 그중에서도 성리학이 유일한 공식적인 종교(적 이념)였다. 이 상황은 15세기 후반 대항해시대부터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해 산업혁명 이후 18세기 무렵부터 본격화한 식민주의 혹은 서구제국주의가 가속도를 붙였다. 세계 곳곳은 강제력에 의해서 혹은 교통과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 다종교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갈등이 빚어졌다(권수영 외, 2019, 14). 이처럼 세계의 다양한 방면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끼쳐 온 기독교 이해는 세계 인구의 1/3에 달하는 기독교인과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많은 학자들이 인류는 지금 대격변기를 지나고 있으며,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평한다. 어떤 이들은 인류가 겪고 있는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류세(Anthropocene)라는 별도의 지질 시대 구분을 적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동료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인류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종교적이며,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된 오늘날은 이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종교의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 있다. 불행하게도 현대사회의 종교교육은 공교육에서는 매우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졌고, 단지 종교 내부 문제로 치부되었다. 이것은 종교 문명을 불러일으켰다. 종교 문명은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 아니라 종교와 종교 사이의 분노와 혐오와 경멸, 나아가 문명들 사이의 충돌이라는 인류의 해결 과제를 낳았다(권수영 외, 2019, 23). 따라서 21세기 필수 교양으로서 종교 리터러시가 절실해졌다.

종교는 존재의 정체와 질서를 해명하고, 그에 따른 제의와 윤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인간에게 삶의 윤리와 기쁨과 보람을 제공하려 한다. 종교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긴밀한 상호 교류를 지속하는데, 특별히 기독교는 세계 최대 종교로서 인류와 세계의 형성과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종교에 대한 이해는 가장 중요한 인문 교양이며, 우리는 종교를 통해 인간과 사회의 본질과 현상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개괄적인 기독교 이해 및 기독교와 정치·사회·문화예술 사이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인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IV. 종교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 1.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기독교 교양교육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분화와 전문화보다는 융합과 종합화의 길을 가야 더 큰 성과를 거

둘 수 있게 되었다. 영역별로 분립되어 있던 문화사회적 현실과는 달리 정보의 유통이 제약 없이 이루어지는 정보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영역별 구획이 무너져 서로 융합되어 통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전문분야의 지식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에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 무력한 것이 되기 쉽다. 이에 각 전문분야의 지식을 깊이 있고 폭넓은 안목 아래 조망하고 연결해주는 지적 연결지평이 요구된다(손동현, 2019, 135). 대학교육이 세분화된 각 학문 분야의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개방적으로 보다 여러 학문분야를 가로지르는 방식으로 실시될 필요성이 있다. 모든 학문 분야에 걸쳐 범용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능력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찰력의 함양을 위해 다학문적이고 학제적인 융복합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여러 전공을 아우르는 융합적인 지식의 적용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문 영역의 통합과 융합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이정기, 2014).

융합적 사고능력이란 기존의 분과적 지식을 종합하여 바로 이러한 새로운 융합지식을 모색하여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다(손동현, 2019, 137). 여기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속에서 세분화된 분야들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통찰력으로, 무엇보다 문제연관 전체를 확인하고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 통찰력은 실은 여러 가지로 하나의 틀 안에서 자료를 종합하는 능력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대학의 교양교육에 있어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학습자의 관심과 문화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철학적, 사회학적, 신학적 접근을 통한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손삼권, 2015). 이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온 문화적 유산과 위대한 사상을 전수하고 공유하는 차원을 뜻한다. 그리고 기독교 교양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이에 학생들은 집중하기보다는 건성으로 듣고 있다(박일우, 2011).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와 문화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교수법들을 개발하여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사유하고 해결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기독교 교양교육의 방법으로, PBL을 활용하여 진행해볼 수 있다. ‘프로젝트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을 의미하는 PBL은 존 듀이(J. Dewey)의 경험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철학으로부터 기원을 찾는다. 듀이는 활동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고행위’에 주목하였는데, 사고행위란 학생들이 현실적 또는 추상적 장애물을 마주했을 때 해결책을 세우고 실천해 보며 그 결과를 성찰하는 것을 뜻한다(J. M. Larmer, R. B. John & S. Boss, 2017, 27-28). 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는 학

생들이 교과 영역 내에서 의미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가 안내하고 함께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사의 판단, 지도 그리고 영향력이 프로젝트 수업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듀이의 주장대로라면 프로젝트 수업이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러한 질문을 학생들이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종합적인 판단 아래 다양한 장애물과 울타리를 제공해 주고 아울러 지도가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김대인, 2018).

이처럼 학습 과정에서 전통적 학습은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PBL은 교사의 부분 참여에서 학습자의 주도적 참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PBL은 점진적으로 학습의 권위를 학습자에게 위임하면서 교수자는 촉진자 역할을 하거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동료학습자, 질문하는 자, 코치, 격려와 동기부여자로서 역할을 한다(이동수, 2021). 그러다 보니 PBL 수업은 교수자보다는 학습자들에게 무게가 실리게 되고 학습 효과가 우월하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PBL 수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많은 국내외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PBL 수업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의 협동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PBL은 조별 혹은 팀별 활동을 전제하기에 협업의 효과가 나타난다. 둘째, PBL은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 상호평가를 요구하기에 수업에 대한 객관성, 특히 민감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된다. 셋째, PBL은 팀플을 전제하기에 학습자 간에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소통도 요구하게 된다(이동수, 2021). 이처럼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며 융복합적인 접근과 협력을 배울 수 있는 PBL 수업의 장점을 교양과목에 적용하는 것은 교양과목 활성화에, 특히 기독교 교양과목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기독교 교양과목을 강의하면서 실제 진행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별 프로젝트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래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첫 시간에 작성한 자기소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전공, 성별, 종교 등을 확인한 후 각 조에 수강생들을 골고루 편성한다. 그리고 매주 강의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진행하면서 전반부에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고, 후반부에는 본격적인 조별 프로젝트를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조별 프로젝트는 기독교 또는 현대사회에 관한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해당 분야에 관해 조사(원인/현상/성서적 근거 등 파악)하고 비판적 토론을 통해 창의적이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결과물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이다. 순서를 살펴보면, ① 설계 및 시작 단계로, 먼저 학습 주제를 선택하고 탐구 질문을 기술한다. 그리고 학습 목표를 설정한 후에 각자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분담한다. ② 지식 이해 및 역량 개발 단계로, 선정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조원들과 자료를 공유하여 토의를 진행한다. 탐구 질문에 답해보면서 결과물 제작을 준비한다. ③ 결과물 발전 단계로, 결과물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고 결과물을

제작한다. ④ 결과물 발표 단계로, 제작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또한 조별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임했는지 본인에 대한 평가 및 다른 조의 발표에 대한 평가도 함께 진행한다. 본인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다.

각 조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선정했는데, 큰 범위에서 환경(지구온난화, 기후변화, 환경 파괴 등), 경제(빈부격차, 양극화, 부동산투기 등), 과학(4차 산업혁명, 복제 인간, AI, 기술 윤리 등), 사회(세대 간 갈등, 범죄, 마약 등), 종교(사이비/이단, 선교, 종교에 의한 차별 사례 등), 생명과 인권(자살, 고독사, 안락사, 낙태, 사형제도, 성/장애인/소수자/인종차별, 혐오, 폭력 등)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특히 생명과 인권에 관한 주제들이 많은 조에서 다루어졌고, 그 외에도 다문화, 다양성, 정신건강, 동물 학대 등의 주제도 다루어졌다.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조사하며 발표하면서 기독교를 보다 입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좋았고 다양한 사회/과학/문화 분야와 연계하여 기독교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어 유익했다는 피드백, 매주 진행되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관점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었다는 피드백과 다른 전공의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이 있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 더 공부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피드백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이나 지식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들 분야를 조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인 지적 안목을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창의적 사고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PBL을 활용하여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하는 교양교육을 통해 종교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기독교 교양교육

대학과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가능성과 끊임없는 변화에 희망을 두고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려는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교육은 기독교의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을 띠며 발전해 온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 종교의 성격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 종교로 자리매김하였다. 기독교는 다양한 요인으로 시대와 지역을 넘어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발전하고 여전히 그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이천 년 동안 교회가 시대마다 고민을 가지고

사회와 소통해왔다.

마틴 루터는 모든 성도가 사제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만인을 위한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당시 교회와 사회의 교육적 사고를 뒤엎는 것이었다.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말과 삶으로 선포해야 하며, 나아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농부든, 영주든, 수공업자든 그 어떤 직업의 사람이든 간에 성도라면 자신의 삶과 직업의 한복판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하며 이 직분을 위해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다.

이신칭의와 성경의 권위 그리고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나갔던 루터는 단지 로마 가톨릭교회의 부패에 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시작 된다고 하며 기독교 가정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오인탁, 1992, 150-151). 또한 루터는 역사상 보편적인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최초의 교육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모든 시민이 성서를 읽을 수 있게 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계발함으로써 하나님, 교회, 사회 그리고 국가를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성서연구 이외에도 루터는 어학, 역사, 문법, 문학, 수학, 수사학, 논리학, 시, 음악, 체육 그리고 자연학습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다. 칼빈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가난한 이들에게 공동작업장에서 의 공공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빈곤층 어린이들도 배울 수 있는 학교와 병원 등 복지시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종교개혁은 이처럼 기독교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적 역할들을 담당하였다. 가정에서의 교육을 중요시했으며, 교육의 책임과 시행권을 교회에서 국가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와 선진공업국가를 설계함으로써 신학이 현실에 기독교 정신으로 참여하는 학문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17세기 말과 18세기 초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태동한 경건주의 운동은 교회에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예배 의식과 신앙고백 그리고 이에 편승한 교회 교육제도를 비판하면서, 기독교인의 영적 체험과 실천적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개인의 실천적 생활의 중요성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관계를 위한 사랑과 봉사를 최우선 과제로 간주하였다. 진실되고 선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한편으로 개인의 자기성찰과 참다운 신앙생활의 영위를,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윤리도덕적 생활의 실천을 존중하였다.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독일 국민의 정신적인 각성과 조직적인 사회교육운동으로 발전되었다.

경건주의 교육의 중심은 교리의 수업이 아니라, 경건주의의 종교적 실천이다. 경건주의 교육학의 체계를 정립한 프랑케는 초등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도시 외곽지역의 가난한 아동들에게 빈곤과 무지와 부도덕성으로부터의 해방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와 교육의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교사 양성을 위한 독일 최초의 사범학교를 세웠다. 프랑케의 학교들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진보적이며 모범적인 교육기관들을 설립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프랑케 재단을 세워 가난한 집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고아원, 신분 계층의 자녀를 교육하는 페다고기움,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사 세미나, 라틴어 교사를 양성하는 고등 세미나, 여학생 기숙사와 여성 기숙사와 과부기숙사를 포괄한 여성교육기관인 여성재단, 그리고 서점과 약국 등을 설립하였다(K. O. Gangel & W. S. Benson, 1992, 189-190). 스페너를 비롯한 경건주의자들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들을 설립했으며, 기독교정신을 실천해나갔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한국에 전래된 개신교의 모습에서도 기독교의 공적 역할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개신교는 조선사회의 사회체제를 위협하여 핍박을 받았던 천주교와 달리,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일조하는 사회 참여적 요소를 지녔다. 개신교의 초기 선교는 조선 사회체제의 급격한 변화 없이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조선의 개방정책에 충실하게 부응한 것이었다. 그 결과 개신교 선교는 의료, 교육, 문화 선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권수영 외, 2019, 122-123). 먼저 의료적 차원에서 보자면, 북미 장로교회 출신의 앨런은 1884년에 조선 땅에서 선교의 일환으로 의술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는 1885년 조선 최초의 왕립 병원인 광혜원을 개원하였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광혜원은 일반 백성을 위한 제증원으로 개명되었다.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스크랜턴의 어머니인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을 설립하였고, 북미 장로교회 출신의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창립하였으며, 북미 감리교회 출신의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을 세워 조선에 다양한 교육의 터를 마련하여 근대화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개신교의 선교사들은 조선 사회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문법에 대한 기초가 확립되었고, 성서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신분에 관계없이 한글이 전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보급되기도 하였다. 이뿐 아니라, 선교사들은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증진시켰고, 더 나아가 신분제를 넘어서는 인간 평등사상을 설파하였다(이만열, 1992, 14-17).

3·1운동의 독립문 선언에도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 당시 조선 총인구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민족 대표자의 과반수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은 놀라운 점이다. 기독교인들은 신한청년단, 대한인국민회, 조선기독교청년당 등을 통해 민족자치의를 고취시켜 나갔고, YMCA 모임과 세브란스병원을 통해 기독교 청년들에게 독립사상을 전파하였다. 또한 3·1운동 관련해서 투옥된 조선인 중에서 대략 20%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권수영 외, 2019, 126). 3·1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제 치하에서 한국 기독교는 식민주의에 항거함으로써 민족의 자결권을 수호하고 민족주의를 고양시켰다.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시작된 군부독재 시대에 민주화, 통일, 노동 운동의 곳곳에서 기독교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민주화와 통일 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고, 한국교회의 진보 세력은 정치 문제뿐 아니라 당시 치열한 사회문제, 특히 노동 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산업 선교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노조 창설을 돕는 등 노동자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권수영 외, 2019, 134-135).

세계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국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때론 핍박을 받거나 저항하기도 혹은 순응하기도 하였다. 역사의 여러 장면 속에서 각 시대 교회의 명과 암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왔다는 것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는 갈 길을 잃은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이름도 빛도 없이 낮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와 교회는 다가오는 포스트/트랜스 휴먼 시대에 인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교회의 방향성은 시대마다 교회가 겪은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통해 얻어져야 한다(권수영 외, 2019, 112-113). 교회와 제국, 교황과 황제, 이성과 신앙, 보수와 개혁, 사회와 개인, 주체와 객체 등의 다양한 갈등 속에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응전했던 우리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더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미국 대학교 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의 교양교육이란 각 개인들이 복잡성, 다양성, 변화에 직면하여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게 능력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과 소통 및 문제 해결 기술과 같은 강력하며 전수 가능한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고양한다(박승인, 2014). 이 같은 정의에 의하면 교양교육에서는 복잡성, 다양성, 변화에 직면한 상황을 헤쳐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한다. 21세기의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로는 개인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이와 아울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 리더들에 대한 공적 책임감 부여인 것이다. 사회적 리더들을 위한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은 역사적 변천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21세기를 마주한 교양교육의 정의에서도 부각되는 내용이다. 대학교 교양교육의 근원적 과제는 공적 사회의 전인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있다. 사회의 전인적 지도자를 규정하는 덕목은 바로 공적 책임감과 정의로움이다. 이 지점에서 기독교와 대학교 교양교육과의 접촉점이 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독교 교양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일(암 5:24)이라고 한다면, 정의가 상실된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미래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교육하는 일이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승인, 2014).

오늘날 사회가 점점 비인간화되어 갈수록,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해가는 사회 속에서 비윤리성과 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무한경쟁을 통해 개인의 이기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빚어낸 비극적인 결과임을 깨달을수록 대학의 교양교육은 그 물결을 거슬러서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의 공적 책임감을 강조해야 하며, 바로 이와 같은 교양교육의 역할은 기독교 신학과의 공통분모를 가지게 된다(박승인, 2014).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인류애가 무엇인지 질문함으로써 잊어버린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대학의 교양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자 도달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바르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양교육이 대학교의 전체 교양 교과목에 공헌하는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현재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공공성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강하다. MZ세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심이 많고 인권, 환경, 사회정의 등과 같은 문제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윤성민, 2023). 이 세대는 특정 이슈에 대한 생각, 태도, 성공, 행복 그리고 다양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신들만의 기준이 있다. 또한, 평등과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러 경로와 다양한 사회관계망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며, 기존 관습 또는 사고방식에서도 각자 개인의 선택과 결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에서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공적 윤리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강하다는 것이다(조성호, 2022). 그리고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행복감에 이 공정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기독교 교양과목에서 공적 책임감을 다루는 것은 MZ세대의 이러한 특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교양과목이 운영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 시대의 민주시민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대학들이 교양인을 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 교양교육을 통해 종교 리터러시를 함양함으로써 21세기 민주시민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고, 무엇보다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V. 나가는 말

대학은 무엇보다 “인간”을 키우는 곳으로, 온전한 의미의 인간을 키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P. J. Palmer & A. S. Zajonc, 2017, 17). 여기서 “온전한 의미의 인간”은 풍부한 지식을 갖춘 시민이나 숙련된 노동자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화를 책임감 있게 계승하는 상속자이며, 문화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을 의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가치를 판단하며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것은 교양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대학의 역사에 있어, 초기에는 교양교육이 절대적으로 강조되었지만, 근대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점차 실용교육이 강조되었다. 산업사회 이후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닌 전문인과 직업인의 양성에 초점이 모여졌지만,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분별하여 활용하는 지적 능력을 키우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많은 공통분모를 지닌 교양과 기독교는 상호소통을 통해 다양한 학문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으며, 기독교 교양교육은 기독교적 전인을 배양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대학에서 기독교 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인성을 강화시키며, 나아가 전인적 지도자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데 큰 힘이 된다고 전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종교리터러시를 함양함으로써, 이 시대에 요청되는 융복합적 사고를 지향해나가고 공적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수영 외 (2019). **기독교, 묻고 답하다**. 서울: 청송미디어.
- [Kwon, S. Y. et al. 13 (ed). (2019). *Christianity, question & response*. Seoul: cheongsong media.]
- 김기숙 (2008). 코메니우스의 Pansophie 사상에서 본 기독교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정보**, 21, 135-163.
- [Kim, K. S. (2008).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Christian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1, 135-163.]
- 김대인 (2018). PBL(Project Based Learning)을 통한 기독교 교양수업 활용방안 연구. **신학과 복음**, 5, 65-102.
- [Kim, D. I. (2018).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Christian culture Classes through PBL(Project Based Learning). *The ology and the Gospel*, 5, 135-163.]
- 김재현, 이인경 (2019). 기독교 교양 발전방안에 관한 제언.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학술대회**, 1, 28-45.
- [Kim, J. H. & Lee, I. K. (2019).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Culture Education. *Korea Academy of Christianity and Liberal Arts Conference*, 1, 28-45.]
- 노관범 (2010). **대학 교양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제언**.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No, K. B. (2010). *Policy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eoul: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박민수 (2009). 인성 함양을 위한 기독교 교양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코메니우스 이론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0, 113-142.
- [Park, M. S. (2009). A New Paradigm of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for Cultivation of Humanity -Focused on the Theory of J. A. Comeniu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0, 113-142.]
- 박승인 (2014). 기독교 교양교육의 의미 재정립. **대학과 선교**, 27, 143-169.
- [Park, S. I. (2014). The Reestablishment of the Meaning of the Christian Liberal Educa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7, 143-169.]
- 박일우 (2014). 교양교과목 가상강좌에서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전략. **교양교육연구**, 5(2), 321-354.
- [Park, I. W. (2014). Enhancing the interaction between instructor and students in the e-Learning class: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5(2), 321-354.]
- 박주호, 유기용 (2014).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교육과정 개선요구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8, 43-82.
- [Park, J. H. & Ryu, K. U. (2014). The Analyses of the Concepts, Contents, Satisfaction and Future Needs for College Gener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 43-82.]
- 박현정 (2011). 기독교대학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제언. **기독교교육정보**, 28, 55-82.
- [Park, H. J. (2011). A Suggestion for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of Christian Colleges.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8, 55-82.]
- 백승수 (201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양교육의 방향 모색. **교양교육연구**, 11(2), 13-51.
- [Park, I. W. (2017). Search for Directi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1(2), 13-51.]
- 손동현 (2019). **대학교양교육론**. 서울: 철학과현실사.
- [Shon, D. H. (2019). *The theory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Seoul: Philosophy and Real History.]
- 손삼권 (2015). 기독교 교양과목의 인문학적 융복합의 재개념화 -목원대학교 기독교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45, 135-163.
- [Shon, S. K. (2015). Reconceptualization of Integrated Curriculum for Christian Liberal Art Education in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135-163.]
- 손승남 (2011). **인문교양교육의 원형과 변용**. 서울: 교육과학사.

- [Shon, S. N. (2011). *The form and transformation of humanities and liberal arts education*. Seoul: Kyoyookbook.]
- 신행자 (2013). 의미있는 교양교육 학습성과 성취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과정 체제 연구. **교양교육연구**, 7, 467-493.
- [Shin, H. J. (2013). A Study on Undergraduate Lib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an Achievement of Significant Learning Outcom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7, 467-493.]
- 오인탁 (1992). **기독교교육사**. 서울: 한들출판사.
- [Oh, I. T. (1992).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handl.]
- 윤성민 (202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 교양과목 -강남대학교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3, 377-400.
- [Yoon, S. M. (2023). A Study on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 to Overcome Climate Crisis. *Theology and Praxis*, 8 3, 377-400.]
- 이동수 (2021). PBL 수업을 통한 기독교 교양과목 활성화 방안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신학과 복음**, 10, 61-94.
- [Lee, D. S. (2021). A Plan to Promote Christian Liberal Arts through PBL Classes. *Theology and the Gospel*, 10, 61-94.]
- 이만열 (1992).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 [Lee, M. Y. (1992). *Korean Christianity and ethnic consciousness*. Seoul: Jisiksanup pub.]
- 이상민 (2018).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 **인간연구**, 37, 113-133.
- [Lee, S. M. (2018). The Direction of College Liberal Arts Education Demanded by Future Society. *Human research*, 37, 113-133.]
- 이정기 (2014). 기독교대학 교양교육과정 개발의 융합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37, 53-81.
- [Lee, J. G. (2014). Practical Approach to Integrated Curriculum for Liberal Arts Education in Christian University.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7, 53-81.]
- 조성호 (2022). MZ세대의 특징과 미래지향적 기독교 영성 형성 연구. **신학과 실천**, 79, 229-258.
- [Cho, S. H. (2022). The Features of MZ Generation and the Formation of its Future-Oriented Christian Spirituality. *Theology and Praxis*, 79, 229-258.]
- 조용훈 (2004).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 337-359.
- [Jo, Y. H. (2004). A Study on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Christian Universities.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9, 337-359.]
- 조재천 (2020). 기독교와 교양교육, 그 불편(하지만 불가피)한 동거. **대학과 선교**, 46, 7-36.
- [Cho, J. C. (2020). The Uncomfortable and Inevitable Conversion of Christianity and Liberal Educat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46, 7-36.]
- 최미리 (2001). **미국과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비교**. 서울: 양서원.
- [Choi, M. L. (2001). *Comparison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American and Korean universities*. Seoul: Yangseowon.]
- 최성훈 (2020).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기독교 대학의 교양과목 운영전략. **기독교교육정보**, 67, 199-225.
- [Choi, S. H. (2001). The Curriculum Strategy of Liberal Arts by Christian Universities for Responding to the Challeng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7, 199-225.]
- Gangel, K. O., & Benson, W. S. (1992). **기독교교육사**. 유재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저 1983 출판)
- [Gangel, K. O., & Benson, W. S. (1992). *Christian education*. Translator: Park, J. K. Seoul: CLC.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83)]
- Larmer, J. M., John, R. B., & Boss, S. (2017).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경, 장맑은, 김병식 역. 서울: 지식프

래임. (원저 2015 출판)

[Larmer, J. M., John, R. B., & Boss, S. (2017). *Setting the standard for project based learning*. Translator: Choi, S. K., Jang, B. E. and Kim, B. s. Seoul: Jisikfram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5)]

Palmer, P. J., & Zajonc, A. (2017). **대학의 영혼**. 이재석 역. 안양: 마음친구. (원저 2010 출판)

[Palmer, P. J., & Zajonc, A. (2017). *The heart of higher education*. Translator: Lee, J. S. Anyang: friendsbook.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2010)]

Whitehead, A. N. (2004). **교육의 목적**. 오영환 역. 파주: 궁리. (원저 1929 출판)

[Whitehead, A. N. (2004). *The aims of education*. Translator: Oh, Y. H. Paju: Kungree. (Original article published in 1929)]

Harvard Committee. (1945).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Report of the Harvard committe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Homes, A. F. (2001). *Building the Christian academ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Hutchins, R. M. (1976). *The conflict in education in a democratic society*. Connecticut: Greenwood Press Inc.

Moore, D. L. (2014). Overcoming Religious Literacy: Expanding the Boundaries of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109(4), 379-389.

Weaver, F. S. (1991). *Liberal education: Critical essays on profession, pedagogy, and structur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